

# 장애인 재활에서의 기독교적 소명

박혜전(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I. 시작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장애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애를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쁨과 승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계심과 같이 장애라는 인생의 역경 안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욕구와, 공포와, 근심과 희망들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고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설명되어야 한다. 정치면에서 정부는 그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생명, 생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이 때 유기체적 사회선과 인격으로서의 개인선을 조화시키는 사회질서가 필요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가치, 사회정의의 실현에서도 장애인 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은 모두 공동선의 조성을 위한 응분의 사회적 기능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동시에 공동선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고 동등한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시민으로서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삶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하고 꼭 필요한 도움에 대한 욕구도 가진다. 이것이 재활의 철학이자 이념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활철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장애에 관한 문제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들을 예로 들고, 성경속의 장애인 재활의 모습과 재활이 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관여 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재활철학이 곧 인간의 인권회복이라는 인간 존엄성을 그 기저에 두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II. 재활에 대한 이해

### 1. 장애의 정의

2008년 9월 25일에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장애인관련법의 2008년 개정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에 따르면 ‘장애’라는 용어는 개인의 주된 사회 활동 중의 하나 이상을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다.<sup>1)</sup>

1) <http://www.eeoc.gov/policy/docs/902cm.html>.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홈페이지. "Section 902 Definition of the Term Disability."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Impairment(손상, 상실)는 심리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변형 또는 상실이라고 정의하고, Disability(장애)는, Impairment(손상, 상실)의 결과로 초래되는, 한 인간에게서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실행할 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하며, Handicap(불이익, 사회적 불리한 조건)은 Impairment(손상, 상실)나 Disability(장애)로 인해서 개인이 나이, 성별,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에게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역할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불이익이라 정의한다.<sup>2)</sup>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환경적 요소가 점차 더 강해지고 있다.

## 2. 장애를 해석하는 모델

일반적으로 장애는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논의한다. 장애현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까지는 의료·보건증상과 증후군에 초점을 두는 건강상의 접근(individual model)과 사회적 권리의 확립과 같은 사회기능상의 접근(social model)에 초점을 두는 두 가지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특히, 재활의 관점에서는 장애개념을 개인의 능력과 기능수준에 제한을 기하는 손상과 관련된 하나의 행동경향(a pattern of behavior)으로 다루기도 한다(Nagi, 1969). 이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상상태(impairments)가 항상 장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장애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장애는 개념상 구분된다. 장애가 신체질환이나 질병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듯이 손상의 크기도 병리학적 상태와는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모형(individual model)에서 재활과 치료의 목적은 장애인을 정상화(normalization)시키는 것이다. 제한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삶에 개입과 강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변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사회며, 이런 변화는 장애인들의 정치적인 권한부여 과정 중 일부인 것으로 사회적 모형(social model)의 핵심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형은 신체의 차이와 제한은 전적으로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체경험을 부정하는 경향에 특징이 있다. 장애의 사회적 모형은 장애형태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개인의 제한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Lenaard Davis는 장애(impairment)와 무능(disability)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장애는 시력, 청력, 기동력, 정신력 등의 상실 내지는 저하와 관련되지만 주변의 사회가 정서적, 감각적, 인지적 혹은 건축적 장애환경을 만들 때 그 장애(impairment)는 무능(disability)이 된다.<sup>3)</sup>

Donald Senior는 장애인에 관하여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두려움, 무지, 보호, 편견 등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나 둔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장애인이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권리가말로 정의(justice)에 관련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sup>4)</sup> 그는 정의(justice)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2) Arne Fritzon and Samuel Kabue, (2004) 『Interpreting Disability』 A Church of All and for All. Geneva: WCC Publications, , 최순진.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인간창조 의미의 고찰』 p. 53-54에서 재인용.

3) Lennard J. Davis, (2002) Bending over Backwards: 『Disability, Dismodernism & Other Difficult Position』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41

4) Donald Senior,(1995) 『Beware of the Canaanite Woman: Disability and the Bible』 in Religion and Disability: Essays in Scripture, Theology and Ethics, ed. Marilyn E. Bishop. Kansas City, Kan.: Sjeed & Ward, 5.

공평과 조화를 조장하는 상황과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익은 개인의 형편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조화있는 사회를 만들어 누구라도 장애로 인해 차별 받거나 존엄성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David & Sharon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장애를 ‘존재론적 경험의 범주(ontological category of experience)에서 이해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5)</sup> 장애인이라는 별개의 범주나 나뉠대로의 공동체가 생겨서는 안된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 장애인을 위한 학교,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위한 병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전문인을 키우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은 가능하지만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게토(ghetto)화된 의미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결코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배려를 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존재로 보면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물론 장애인의 문제를 오직 사회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적 자존감이나 열등의식 문제도 다루어야 하며 또한 의학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향한 잘못된 인식들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는 어떤 접근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게 된다.<sup>6)</sup>

### 3. 장애에 대한 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종종 “다르다”는 것으로서 부정적 평가를 가진 열등한 사회적 위치에 강제되어지고 대다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기 보다는 장애의 심리사회적 혹은 사회심리적인 파생물들로부터 일어나며,<sup>7)</sup> 이러한 장애문제를 고려할 때 환경을 따로 떼내어 다룰 수 없다. 장애인(handicapped people)이란 용어는 자연적 혹은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장애차별(handicapism)은 인종차별, 성차별과 유사하며, 신체적, 정신적 혹은 행동적 차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과정들과 실제들의 집합체이다.

장애의 신체심리적(somatopsychological)영향은 장애인의 동기화(motivation) 및 재활수단에 대한 장애인의 반응에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은 자아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의 평가절하된 사회적 영향과 심각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는 그동안 소수집단 관점(minority-group perspective)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 교수인 Hahn은 장애는 개인과 환경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였다.<sup>8)</sup> 그에 따르면 소수집단 관점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크게 개인적 결핍이나 결함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조성하는 환경(disabling environment)의 결과로 간주한다. 장애라는 인간 다양성을 실제적인 현상이나 사실적 진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편견이나 일반화된 방식으

5) David Mitchell and Sharon Snyder, 『Jesus Thrown Everything Off Balance』 in This Abled Body: Rethinking Disabilities in Biblical Studies, ed. Hector Avalos, Sarah J. Melcher, and Jeremy Schiper (Atlanta, G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183.

6) 정승원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언약공동체 신학』 p. 142-145.

7) McGowan, J. F., & Poter, T.L. (1967). 『An introduction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8) Hahn (1986). Public support for rehabilitation programs: The analysis of U. S. disability policy.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1-2, 121-136.

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종종 동반자가 아니라 연구, 치료, 간호, 보살핌의 대상으로 여긴다. 장애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면만이 일방적으로 부각되어 총체적 인간의 모습은 잊혀지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불이익 조건은 의료적(개별적)인 성격보다는 대부분 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들에 대한 종속적 역할의 강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통해 장애인을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장애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탐구와 올바른 이해 없이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

#### 4. 재활 철학 및 이념

사회는 어떤 종류의 집단의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을 정하고 한 개인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개인을 다르게 또는 무능하게 아니면 남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바꾸지 않고도 단순히 사회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때 그 사회의 반응이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흔히 장애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 1) 재활의 개념 및 원칙

라틴어 *habilitas* 또는 *habilitare*에서 기원된 용어로 적합하게 만들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심신의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을 재통합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Rehabilitation"은 ① 일단 잃었던 상태를 회복하다(복권), ② 오명을 씻고 떳떳한 몸이 되다(명예회복), ③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다(사회복귀)를 의미한다. 재활은 단순한 치료나 훈련 등의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고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 인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서비스,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적으로 정상생활이 영위되도록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훈련 및 장애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및 경제적 최고수준의 유용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sup>9)</sup> 이렇게 볼 때 재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활이란 단편적이 아니고 전인적 개념이다. 둘째, 재활이란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셋째, 재활이란 인간의 효용성과 적응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넷째, 재활이란 인도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재활이란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완성을 전제로 한다. 여섯째, 재활이란 인간을 만족하고 생산적 생활에 이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재활은 “의료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직업적 중재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개인적 성취감과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고 세상과 기능적,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되어졌다.<sup>10)</sup>

오늘날 재활 철학의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옹호와 신념의 오랜 역사를 나타낸다. 40년 이전 Talbot는 재활을 내담자 개인 능력의 자기의식과 성취에서 삶의 기초가 되는 방법으

9) Bitter, J. A.(1970).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t. Louis: Mosby.

10) Banja, J. D. (1990). Rehabilitation and empowermen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1, 614-615.

로써 언급했다. 30여년 이전 Bitter는 “미국에서 실시되는 재활을 위한 철학적 기초 형태”로 기회균등과 전인격을 말했으며 개인의 독특성을 언급했다. 1959년 이래 Beatrice Wright는 재활 철학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가치와 신념의 목록을 갱신했다.<sup>11)</sup>

재활 철학은 다양한 생각과 재활서비스전달 모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무배제(zero-exclusion)의 개념 즉, 어느 누구든 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며 장애의 경중함을 개의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두 번째는 재활의 생태학적 모델로서, 즉 이것은 개인에게서 환경의 충격을 인지하고 환경수정의 중요성을 말한다.<sup>13)</sup> 셋째 고용후서비스와 지원고용,<sup>14)</sup> 넷째 옹호, 다섯째 권한부여,<sup>15)</sup> 여섯째 선택,<sup>16)</sup> 일곱째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흥미를 가장 잘 판단하고, 그들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서 완전참여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sup>17)</sup>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활 원칙을 들 수 있다.

(1) 인권의 존중:

장애인의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평등을 말한다.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있어서도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고 같은 나이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생명의 존중:

장애인의 재활은 인간 생명존중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로서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3) 공평성의 존중: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가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기회균등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의 참여를 준비하게끔 한다.

(4) 사회통합의 원칙: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정상화나 건강한 사람 속에 통합적으로 처우한다는 통합화는 현대 장애인 재활의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5) 전인격의 존중:

- 
- 11) Wright, B. (Ed.). (1959).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right, B.(1972). Value-laden beliefs and principles for rehabilitation psychologists. *Rehabilitation Psychology*, 19, 38-45.  
Wright, B. (1983). *Physical disability-A psychosocial approach*(2nd ed.). New York: Harper & Row.
- 12) Laski, F. J. (1985). Right to habilitation and right to education: The legal foundation. In R. H. Bruininks & K. C. Lakin(Eds.), *Living and Learning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p. 67-79). Baltimore: Brookes.
- 13) Szymanski, E. M., Dunn, C., & Parker, R. M. (1989).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 ecologic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3, 38-53.
- 14) Wehman, P. (1988). Support employment: Toward zero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 Wehman & M. S. Moon (Ed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upported employment* (pp. 3-14). Baltimore: Brookes.
- 15) Nosek, M. A. (1988).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In S. E. Rubin & N. M. Rubin (Eds.),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fession* (pp. 45-60). Baltimore: Brookes.
- 16) Curl, R., & Sheldon, J. (1992). Achieving reasonable choices: Balanc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with those of rehabilitation counselors. *Rehabilitation Education*, 6, 195-205.
- 17) Dejong, G. (1979).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0, 435-446.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신체의 일부이며 건전한 사람의 한부분에 더해진 하나의 특징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개인이며, 개개의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 한다.

## 2) 재활의 영역

재활은 신체적·정신적인 질환을 의학적 치료는 물론 기능적인 회복과 심리적이며 사회적이고 또한 직업적인 면까지의 회복을 포함시켜 사회인으로서 인간 또는 총체적 인간(human as a whole)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재활은 사람답게 될 권리와 자격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며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기능저하를 기능발달(rehabilitation)로 이끄는 것이다.<sup>18)</sup>

### (1) 의료재활

의료적 재활은 장애인 재활의 첫 단계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로 질병이나 장기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던 의학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으로서 장애의 발생과 동시에 시작되며 치료와 병행하여 진전되어야 한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애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각종 재활치료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꾀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의료재활이란 장애극복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의료재활 서비스의 목적은 신체적 장애의 예방, 신체적 장애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며, 장애인이 지닌 장애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 보다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적 재활은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재활의 과정 중에 가지는 욕구, 정서, 관심, 가치관, 태도 등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접근으로서 심리적 향상과 협조를 도모한다. 심리적 재활은 재활과정의 각 영역에 중요한 공통적 분야이다. 사회적 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재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원조를 말한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주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 (3) 교육재활

교육과 재활은 인간 사회 속에서 기회의 균등을 확립하는데 있어 핵심요소이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으로 사람들은 더욱 더 생산적으로 될 것이고 지식, 적절한 가치들과 행동들을 가르친다.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잠재능력인 가능성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 전용호. (2000).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 (4) 직업재활

오늘날 의료 및 재활공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과거 고용을 생각할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 소득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유지 및 확보에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직업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5.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disability)는 어떤 개인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회적 장애(handicap)는 재활서비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유용성과 환경이 부과하는 장벽들의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sup>19)</sup>

전통적 재활 패러다임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지닌 일상생활 능력의 부적절성에서 파악하려 하거나 고용을 획득하기에 부적절한 준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개인의 내부에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재활전문가인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재활전문의들의 충고와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도록 요구된다. 이 때 장애인에게는 환자 혹은 내담자 역할(sick role)이 부여되고 재활과정의 목표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 극대화나 고용이 되며, 따라서 재활 성공여부는 크게 장애인이 미리 계획된 치료과정을 얼마나 순응하며 잘 따르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독립생활 패러다임은 문제를 개인의 신체에 맞추기 보다는 종종 전문가와 장애인간의 관계나 환자와 의사 관계와 같은 의존성 유발 관계들을 해결하는 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찾는다. 따라서 재활은 문제해결 보다는 문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문제의 소재는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사회전체로서의 사회적 통제기제와 물리적 환경 및 재활과정 속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환경적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환자나 내담자의 역할을 벗어나고 소비자의 역할을 회복하여야 하며, 독립생활의 주된 패러다임이 되는 소비자 통제, 자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환경개선과 같은 노력들을 하도록 요구된다.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이라는 재활패러다임은 최근에는 다시 포함(inclusion)의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구체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독자성, 개인과 사회적인 평등(능력과 기회의 인정)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이 사회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셋째, 또 사회통합에 필요한 개인적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인 능력의 개발이나 재평가 ② 개인적 독자성과 공공 정체감 ③ 자기 해방 (liberation) ④ 사회적 해방 ⑤ 사회적 평가와 적응 등이다.

19) Rubin, S. E., & Roessler, R. T. (1995).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 Ⅲ.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성경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장애를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써 쉽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 자체에 초점을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 소개되며,<sup>20)</sup> Jeremy Schipper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자체에 초점이 두어지기 보다는 나라 혹은 사회 주도권 싸움에서의 승리와 지도력을 사실적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장애를 내세워 역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 맥이 풀렸고”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절뚝발이’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하 5장 6절,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던진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사무엘하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처럼 제레미 스키피의 주장은 성경에서 개인적인 장애를 일방적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것이 된다. 삼손은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을 멸절시켰다(삿 16:30). 이삭은 노년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대족장으로서 공동체를 이끄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야곱, 아히야(왕상 14:4), 사도 바울 역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갈 4:15, 고후 12:7). 이와 같이 만약 개인적 장애 자체가 문제였고 장애인은 사회에서 아무 쓸모 없고 퇴출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삭, 야곱, 삼손, 아히야의 장애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언급을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상징적 의미나 예표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장애를 가진 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자에 걸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동료가 되거나 동석하는 것은 치욕이고 자기도 죄인으로 행여 의심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믿는다. 레위기 13장 45-46절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거기

20) 함택,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해석에 관한 조망』 71-102.

21) Jeremy Schipper (2007). 『Disabling Israelite Leadership』 in This Able Body: Rethinking Disabilities in Biblical Studies, ed. Hector Avalos, Sarah, J. Melcher, and Jeremy Schipper. Atlanta, G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07-109. 정승원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언약공동체 신학에서 재인용. p.145-146.



에서는 문둥병이라 간주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자신을 남과 구별하기 위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격리의 사상은 중세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 문둥병 또는 중병환자는 작은 나무 조각을 몸에 붙이고 그것을 달랑거리면서 다녀야 하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계속 받고 있었다. 현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합(inclusion)’이라는 것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아직도 ‘편견’ 과 ‘차별’ 의 사상이 깔려 있다. 분명 장애인의 인권을 문제 삼고 그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손을 펼친 기독교의 공적은 크지만 기독교 사회에서조차 한편으로는 봉건제후의 궁정에서 ‘장애인’ 을 웃음거리로 이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구약성경은 장애를 가진 자를 부정적,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회복에 대한 희망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레위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겨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편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53장 4절)라는 구절이 있지만, ‘질고’ 란 죄의 상징이라는 전승이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병자나 장애인을 고치셨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는 육체의 질병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 인류가 범한 죄(영적인 병을 가리킨다)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구약 중에 있는 장애인의 상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래의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자들을 분리하여 낙인을 찍고 추방하거나 격리시키거나 하는 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35장 5-6절)라고 한다.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어디에서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문둥이는 깨끗함을 받고, 굶주린 자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위대한 자에게만 받드심을 받을 분이 아니라 사람들로 부터 경멸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해 왔던 사람들, 특히 장애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에 손을 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에 다시 한 번 ‘인간’ 으로서 복귀시키신다.

## 1.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장애인들

### 1)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sup>22)</sup>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리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창세기 29장 17절)**

22) 나이토 토시히로. (1989) 『舊約聖書에서 본 障害者』 박천만·김경란 역. 한국장애인 진도협회 발행

레아는 요즈음으로 말하자면 약시(弱視)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야곱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으나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고 남몰래 서러움과 고독에 번민했을 것이다. 장애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정신적, 사회적 고통까지 가해진다면 그는 한층 더 궁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아의 어두운 인생 길에 빛이 비추어졌다. 그녀의 갈 길은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은 것이다(31절).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아는 유다를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29장 35절)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삶의 고백으로 주신 은총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전까지 오로지 남편과 라헬에로만 마음이 쏠려 있었으나 이제 레아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레아가 짊어져야 했던 장애의 고통은 현대의 장애인들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 첫째는 눈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사랑이나 기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며, 둘째는 레아에게서의 무거운 짐은 또 한사람의 아내인 라헬과 계속 비교당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도전해 온다.

그럼 장애인도 이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각함으로써 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아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면적 생활이 확립되었을 때 남편과 자신과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실마리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 유다로부터 메시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만한 라헬에게서가 아니라, 나약함과 고통을 알고 있는 레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바울의 고백을 떠올린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 2)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창세기 32장 25절)**

야곱에게서 배우는 영적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항상 사람을 속이며, 교활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약함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야곱은 약삭빠른 성격으로 젊어서부터 가족을 떠나 20년간이나 고난을 겪으며 반생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을 눈앞에 두고서, 그는 형과 화해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회환에 잠겼을지도 모른다.

관절을 빼었다는 것은 자신의 발로,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비로써 야곱은 누군가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즉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밤 이후 발을 질질 끌며 걸어야 했던 야곱은 건강할 때 얻지 못했던 풍성한 축복을 브니엘의 나루터에서 받았음이 틀림없다.

야곱은 이 일이 있는 후,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아마 야곱이 걷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장애를 가지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단숨에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두 배, 세 배나 걸려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에너지도 두 배, 세 배 방출해야 한다. 답답함, 안타까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등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 그 일이 있는 후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신체에 결함이 있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건강진단에서 제외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달리 징병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를 가졌다 해서, 또는 나약함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일을 잘 진척시킬 수 없다고 해서 ‘굳게 살아서 간증하는’ 싸움터에서 도망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야곱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며 매달렸던 점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장애인 재활의 영역 중 장애인의 심리적 재활의 적용을 볼 수 있다. 개인의 동기와 의지를 촉진시켜 그로 인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니게 하는 재활의 심리·사회적 영역을 주의 깊게 짚어 볼 수 있다.

### 3) 문둥병자 나아만

####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열왕기하 5장 1절)

나아만은 유능한 군인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내어 국가를 구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일반 사회로부터 보다 철저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문둥병이 발견되면 즉시 옷을 찢고 입술을 가려야 했으며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다(레위기 13장 45절, 46절 참조).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물리치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 상처를 낫게 하신 일들로 신약성경(마가복음 1장 40-45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고귀한 신분의 그였지만 문둥병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아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데려 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했을 뿐이다. 나아만은 몹시 기분이 상해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의 종들의 말로 인해(열왕기하 5장 13절)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갈 것을 고백하게 된다(열왕기하 5장 15-17절).

성경은 언제나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고침을 위한 고침도 아니고, 기적을 위한 기적도 아니다. 그 병고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나아만에게서 깨닫게 되는 영적의미는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어떻게 하여 그의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는 겸손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생을 소생케 하며...”(이사야 57장 15절) 움푹 패인 ‘골짜기’ 일수록 은혜의 비를 보다 많이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4) 욥의 고백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기 3장 20절)

우리는 욥의 고난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당하자 곧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욥의 고백은 유명하다. 또 그의 내용은 최악의 때가 와도 하나님께 신뢰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순경(順境)에 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신앙을 역경(逆境)에서도 계속하여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갑자기 고난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인간은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기도 한다. 욥의 경우에서 보면 그의 고통은 ‘수용의 한도’를 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응답해 나가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는 욥과 같은 병을 안고 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사람들의 선의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얼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순풍에 있든 폭풍에 있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난은 사람을 편벽하게도 하지만 성장의 수단, 훈련의 화로로도 사용된다. 욥은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에서 해방되고 다시 자식과 재물이 풍부하게 되어 이전보다 두 배나 잘 살게 되었다.

## 2. 예수그리스도의 장애인관 조명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시각장애)이 보며 앓은뱅이(지체장애)가 걸으며 문둥이(한센병)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4-5)고 말씀하신다.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한다.

예수의 정체성을 죽은 자의 살아남과 장애인의 치유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죽은 자와 장애인과 가난한 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끊쳐지거나 소외된 대표적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는 이런 소외된 자,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로 합류시키는 데에 그 사역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신다. 이러한 점에서 소수자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소외되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재활의 목표이자 철학인 동시

에 기독교적 소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산층 교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과의 거리이다. 우리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에게 초점이 가 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변함없는 예언자적 임무다. 숨은 빈민들을 발견하는 일은 흔히 말하되 ‘사회적 행동’ 정도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성경을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바로 우리 삶과 재활이라는 학문을 통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재활은 장애인에게 밖으로 나가기를 권한다. 스스로 해보고, 실수도 인정하는(error-free) 그런 삶을 권한다. 복지라는 테두리로 장애인을 두 번 묶어 두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삶의 권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한 권리는 인권이라는 차원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서의 자존의 권리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들을 보호하고 동정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안으로 안으로만 가두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사회속에서 동등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누가 자신의 삶을 타인에 의해 조정받기를 원하는가? 장애인의 삶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장애인의 재활의 중요도와 그 가치를 물어보아야 하며, 그것이 가장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사람들, 곧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심판이 될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소수계층의 사람들 즉, 장애인들의 삶이 언제나 아니지만 빈곤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난이라는 것이 ‘정치’의 이슈가 아니라 영적이며 종교적인 이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전 세계의 현장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재활 프로그램들의 실례를 연구하고 그 접근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런 삶을 위한 일련의 재활 서비스를 통한 최상의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 삶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앓은뱅이(지체장애)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 재활이라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과 생명에의 존엄과 그들의 권리를 위해 방법론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야 한다. 일시적으로 장애인에게 관심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적인 방법 및 지원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소외당하고 학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적인 태도는 더 이상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을 다 전달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고 천국만을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며 영원의 시점에서 현실의 것까지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재활의 재조명

#### 1) 사회선, 사회정의 함의

1979년 12월에 국제 연합에서 채택된 ‘국제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의 63항에는 ‘...어느 사회가 그 구성원 중의 몇 사람을 추려낼 경우 그것은 약하고 무력한 사회다’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사람들의 요구에만 응해 왔다. 그러나 사회에는 어느 시대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을 포함한 사회야말로 완전한 사회이다.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가 외견상의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을 내쫓는 듯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되어야 할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공평(equity)이나 공정(fairness)의 준거가 종종 평등(equality)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다. 우리는 재활서비스의 제공으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적 불공정을 공정화시키고 평균적인 활동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이나 능력이 부족한 구성원들을 우선 배려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장애를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철학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기회 보장에 있다. 기능상의 장애를 지니는 사람들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시민으로서 고유한 책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궁극적으로 억압된 소수집단 구성원으로 특징지워지는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시민권적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2005년도에 47,280,000명인데,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010,560명으로 남자 1,244,812명(63.5%) 여자 765,748(38.1%)이다.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조사대상 15,864,809명 가구의 12.3%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2/4분기)의 52.1%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sup>24)</sup>

장애라는 상황은 장애인들의 89.4%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고 있고, 사고(36.6%)보다 질환(52.4%)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25)</sup> 이처럼 장애발생은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의 문제’라는 명제아래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재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23) Rubin, S. E., & Roessler, R. T. (1995).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24) <http://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25) 박혜전. (2003)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2) 전인적 재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무지를 일깨워주시는 복음전도자시며, 영육의 치료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자들의 고침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병고침을 통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남을 경험한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1) 성경에 나타난 의료적 재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장애인 사역을 너무나 많이 펼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전체에서 장애관련 구절은 총 571구절로서 4복음서 전체 구절의 1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장애인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장애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많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장애관련 구절은 총 1,317구절로 나타나고 있어 실로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하며 우리가 장애에 대한 반응과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sup>26)</sup>

“열왕기하 20(1-7)” 병든 히스기야왕의 부르짖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무리를 시켜 상처에 바르니 나음

“사도행전3(1-16)” 사람들이 메고 올라온 앓은뱅이 된 구걸인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사도행전 14장(8-12)” 발을 쓰지 못하는 루스드라의 나면서 앓은뱅이 된 한 사람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도행전 28(7-10)” 멜기세덱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하매

“누가복음 13장(10-13)” 십팔년동안 귀신들린 여인을 안수하심

“마태복음 9장(27-30)” 두소경의 눈을 만짐

“마태복음 20장(14-34)” 소리지르는 길가에 앓은 두 소경을 불러서 눈을 만져주심

“마가복음 8장(22-25)” 사람들이 데리고 온 소경하나를 침을 발라 안수하심

“마가복음 10장(46-52)” 바디매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누가복음 4장(38-39), 마태복음 8장(14-15)” 열병에 붙들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꾸짖어 치료하심

“누가복음 5장(12-13)”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니 깨끗하게 함

26) 이재서,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관련 구절 분석』. p. 49.

“누가복음 8장(40-48)” 열두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어 나옴

“누가복음 5장(18-26)”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2-10)” 백부장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이르시어 고치게 함

“누가복음 8장(1-3)”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누가복음 14장(1-6)” 만성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냄

“누가복음 17장(11-19)” 문둥병자 열명이 깨끗함을 받음

“누가복음 4장(33-37)”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함

“누가복음 8장(26-39)” 무덤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 하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하여 산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심

“누가복음 9장(37-43)” 귀신 잡힌 아이를 꾸짖으시고 보게 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린 후 낮게 하고 떠나가심

“누가복음 6장(6-10)” 회당안에서 오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이 회복됨

“누가복음 22장(47-53)”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이 칼로 쳐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만져 낮게 하심

“사도행전 9장(13-19)”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

“마가복음 7장(32-37)” 어눌한 무리들이 데리고 온 자를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마가복음 5장(24-29)” 시몬이 병들어 누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감

“요한복음 5장(2-18)”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자 중 삼십 팔년 된 병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하고 일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여 나옴(안식일)

“마태복음 8장(14-15)” 베드로의 열병든 장모의 손을 만져 낮게 함

“마태복음 8장(16-18)”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 (2) 성경에 나타난 심리적 재활

“ 여호와 하나님은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육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영혼)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부분만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안다. 결국 신체적 장애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1장 26-27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 인간 아담과 이브는 완전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여 자신의 모습이 깨어진 자아상으로 변화하였다. 죄로 인해 자아정체성에서 인간은 잘못된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부풀려진 자아



상이고, 또 하나는 축소된 자아상이다. 부풀려진 자아상이나 축소된 자아상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축소된 자아상은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아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며, 육체, 믿음, 외모, 학력, 경제력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나다” 라는 건강한 자아정체성 의식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한다. 축소된 자아상은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만들어 낮은 자존감과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강화되며, 장애인이 장애로 느끼는 사회 심리적인 갈등은 장애로 인해 생긴 기능문제보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에 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의 거시적인 이론을 실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체나 정신적인 기능 한계보다도 장애인의 자아감, 동기부여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 요인들은 주목 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직업재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업재활사에 의해 장애인의 사회,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부적응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좌절하고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영적 도움이 포함된다. 또한 재활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지남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적응을 위한 상담기술들과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람으로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다. 육체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에게의 초월의 능력을 믿음은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를 가능케 하며 재활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기도는 중요한 심리적 재활이 된다. 신앙을 지닌 장애인은 장애와 관련된 그릇된 효과들을 관리하고 장애 적응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기도는 힘의 원천이며 장애와 관련한 만성질환을 지닌 개인들의 재활을 촉진하는 자원이 된다. 기도의 잠재력에 대한 의식은 개인, 가족 그리고 종교조직 내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 (3) 성경에 나타난 직업적 재활

왕하 7: 3-10 한센병 장애인이 일을 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27) Weinberg, N. & Sebian, C. (1980). *The bible and disability Rehab counseling Bulletin*, 23(4), 273-281.

우리에게 미칠찌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

모세의 율법에 따라 비록 성 밖에서 살았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나라를 위해 왕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구약성경에서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일을 한 경우이다.

재활은 장애인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자치성에 목적을 두는 반면, 많은 공공 장애정책들은 수혜성을 중요시하는 복지적인 측면을 띤다. 사회복지와 재활이라는 두 종류의 공공 장애정책이 모두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장애정책은 수혜성 지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많은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예시하도록 하며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사회 속으로 통합되거나 완전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속담처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재활의 접근방법에 가깝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평범한 일자리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평등, 독립,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바람직한 길이 된다. 재활은 대상자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고려하는 경향을 지닌다.

장애인의 재활은 전통적 재활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활공학적 접근과 함께 치료지향적 혹은 직업지향적으로 응용하는 다학문적인 협력인 팀 접근방식(team- approach)을 이용하는 인간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과학이란 재활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체계, 누구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관찰을 통해 얻어진 객관적 측정에 기초하는 접근방식을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 또한 재활과학은 순수학문이 아니라 응용학문이요, 응용과학이므로 끊임없이 임상에 적용하고 그 결과로 다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며, 또 다시 현장에 자료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 4.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재활방향

우리가 생각하기는 구약성경에서는 장애인을 낙인, 차별, 동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많은 은유와 비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그렇다면지라도 신약에서는 재활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음이 분명한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활철학은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소수자 입장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약한 자를 들어 주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도록 치유하여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요한복음 9장 1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람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하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맹인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나가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나니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12:9)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려 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나의 약함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베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가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동정, 관용을 베풀기도 한다. 공허히 여기고 안타까와할 수 있으나 결코 미화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일정한 시간의 육체를 주셨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 고통이나 근심이 있으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한 죽은자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육체를 벗어나서는 구원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귀한 육체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한번 밖이며 그래서 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 인생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무궁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이 곧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지닌 육체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많은 성경구절을 통해 알고 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모든 것이 귀하며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세월을 아끼라” 한정된 이 땅에서의 시간동안에 자신의 효용가치를 높여 은혜로운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은 공평한 은혜를 주셨다. 육체는 장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것이 은혜이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를 위해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는 앓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와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다.

영육의 치료를 통하여 주의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그 앓은뱅이(지체장애)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사고,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철저한 자기부인의 삶이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지마비로 장애가 된 뒤 장애를 극복하고 존스홉킨스 병원 재활의학 전문의가 된 이승복 박사, 강영우 박사 등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이승복 박사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금메달이나 올림픽 트로피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저를 통해 복음을 전파 하시고자 부르셨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꿈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능을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 22) 라고 적고 있다.

모두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풍요로움을 느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일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 함께 나눌려는 이웃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동료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들이 사회속에서 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스스로 나서서 찾는 자세가 필요한 기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IV. 맺으면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재할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할 철학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재할철학은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와 평등을 지향한다.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동등한 인격이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지 간에 권리를 지니며, 귀하고, 평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곡되게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외모지상주의에 커다란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에서는 ‘장애’를 주변화시키고 장애를 차별하고 낙인시하였다. 장애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차별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또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사람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영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 재할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장애의 관점은 개별적 모형에서 사회적 모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죄나,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속에서 자기선택, 자기결정이라는 형태의 삶이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인식의 진보가 장애인의 진정한 재할기회를 어떻게 촉진시키는지, 재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문제와 중증장애인의 옹호, 환경적 접근성, 장애인 권리운동으로서의 독립생활 재할, 그리고 재할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다루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보살피고 동정의 손길로서가 아닌 전문적 재할방법과 기술들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의 잠재능력에 기초한 재할의 이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신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삶과 관심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한정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에 대한 신학의 이해와 재할의 이해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 장애인들의 사례를 통해 장애는 처벌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의 통로가 되며, 장애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장애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공동선이라는 정의를 위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권의 문

제는 구호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활의 각 영역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때 가능하다. 의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교육적 재활, 직업적 재활을 통해서 장애인은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2006년 12월 31일 유엔 회원국 192개국 만장일치로 유엔총회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총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장애가 결코 장애되지 않는 곳이다. 우리의 학문과 믿음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야 한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장애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으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공동선 추구 및 인권회복으로 우리의 관심이 돌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결코 불쌍한 존재로만 보시지 않으셨다. 영혼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복음 사역자로 감당케 하시기 위해 장애라는 고통도 주셨다. 우리는 크고 작게 모두 고통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한 면에서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장애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특별히 기도라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심리·사회적 재활의 제공과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완성이자 재활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박혜진. (2003).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재서. (2008).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관련구절분석』 세계밀알. pp. 9-49.
- 이재서. (2008). 『신약신학적 접근에서 본 장애인: 복음서에 나타난 장애관련 구절 분석』 밀알운동 30년 기념 장애인신학 학술 세미나.
- 전용호. (2000).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 정승원.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언약공동체 신학』 pp. 133-172.
- 최순진.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인간 창조 의미의 고찰』 pp. 51-69.
- 함택. (2009)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해석에 관한 조망』 pp. 71-102.
- Wallis, J.(2005). 『God Politics』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정성목 역.(2008) 『하나님의 정치』 청림출판.
- 나이토 토시히로. (1989). 『舊約聖書에서 본 障害者』 박천만·김경란 역. 한국장애자 전도협회 발행
- Arne Fritzson and Samuel Kabue (2004) 『Interpreting Disability』 A Church of All and for All(Geneva: WCC Publications).
- Banja, J. D. (1990). Rehabilitation and empowermen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1, 614-615.
- Beck, R. (1994). Encouragement as a vehicle to empowerment in counseling: An existential perspective. *Journal of Rehabilitation*, 60(3), 6-11.

- Bitter, J. A.(1970).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t. Louis: Mosby.
- Curl, R., & Sheldon, J. (1992). Achieving reasonable choices: Balanc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with those of rehabilitation counselors. *Rehabilitation Education*, 6, 195-205.
- David Mitchell and Sharon Snyder (2007) 『Jesus Thrown Everything Off Balance』 in *This Abled Body: Rethinking Disabilities in Biblical Studies*, ed. Hector Avalos, Sarah J. Melcher, and Jeremy Schiper (Atlanta, Ga.: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83.
- Dejong, G. (1979).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0, 435-446.
- Donald Senior.(1995). 『Beware of the Canaanite Woman: Disability and the Bible』 in *Religion and Disability: Essays in Scripture, Theology and Ethics*, ed. Marilyn E. Bishop(Kansas City, Kan.: Sjeed & Ward, 5.
- Hahn, H. (1985). Changing perception of disability and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In L. G. Perlman & G. F. Austin (Eds.), *Social influences on rehabilitation planning: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A report of the ninth Mary E. Switzer Memorial Seminar] (pp. 53-64). Alexandria, VA: National Rehabilitation Association.
- Hahn, H. (1991). Alternative views of empowerment: Social services and civil rights. *Journal of Rehabilitation*, 57(4), 20.
- Laski, F. J. (1985). Right to habilitation and right to education: The legal foundation. In R. H. Bruininks & K. C. Lakin(Eds.), *Living and Learning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p. 67-79). Baltimore: Brookes.
- Lennard J. Davis. (2002). 『Bending over Backwards: Disability, Dismodernism & Other Difficult Position』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41.
- McGowan, J. F., & Poter, T.L. (1967). 『An introduction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Nosek, M. A. (1988).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In S. E. Rubin & N. M. Rubin (Eds.),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fession* (pp. 45-60). Baltimore: Brookes.
- Rubin, S. E., & Roessler, R. T. (1995).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 Szymanski, E. M., Dunn, C., & Parker, R. M. (1989).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 ecologic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3, 38-53.
- Bitter, J. A.(1970).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St. Louis: Mosby.
- Wehman, P., & Moon, M.S. (1988).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upported employment』 Baltimore, Maryland: paul H. Brooks Publishing Co.
- Wehman, P. (1988). Support employment: Toward zero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 Wehman & M. S. Moon (Ed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upported employment* (pp. 3-14). Baltimore: Brookes.
- Weinberg, N. & Sebian, C. (1980). The bible and disability. *Rehab counseling Bulletin*, 23(4), 273-281.
- Wright, B. (Ed.). (1959).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right, B. (1972). Value-laden beliefs and principles for rehabilitation psychologists. *Rehabilitation Psychology*, 19, 38-45.
- Wright, B. (1983). *Physical disability-A psychosocial approach*(2nd ed.). New York: Harper & Row.
- UN장애인인권헌장. (1979, 2006)